

## 〈사우회장배 친선바둑대회〉



수상자들과



A組 우승 최용원 회원



B組 우승 박종규 회원

2023년도 '사우회장배 친선바둑대회'가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류근종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창호 바둑동호회장의 개회선언과 장명호 사우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정태식 총무가 대회 규정과 진행순서

를 참가회원들에게 전달한 다음 사전에 추첨을 통해 정리된 대국표에 따라 A組(1급~5급)와 B組(6급~10급)로 나뉘어 오전 대국이 시작됐다.

12시가 되자 잠시 대국을 멈추고 사무처가 예약한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대국에 대한 환담

을 나누는 회원들은 이어 오후 대국에 들어 갔고 오후 4시 30분경 대국이 종료됐다.

대국 결과 A組에서는 올해 사우회 가입을 하여 처음 출전한 최용원(편제) 회원이 우승했고 B組에서는 박종규(기술) 회원이 우승함으로 써 한 급 승급이 돼 다음 대회부터

는 A組로 출전하게 됐다.

A組 준우승은 양홍렬(기술) 회원, B組 준우승은 정영수(관리) 회원이 차지했다.

우승자에게는 우승컵과 상품이 주어졌으며 사무처는 바둑대회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에게 고급 파운드케익을 선물했다.

## 〈사우회 등산대회〉 열려



사우회가 주최하는 등산대회가 10월 25일(수) 오전에 열렸다. 그동안 북한산둘레길(순례길~소나무숲길 구간)에서 열렸던 등산대회가 올해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교통도 편리하고 산행이 조금 쉬운 서울둘레길 4코스(남부터미널~우면산~양재시민의 숲 /약 4km)로 장소를 바꿨다.

맑은 가을 하늘과 등산하기 좋은 날씨에 아침 일찍부터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사우회에서 준비한

타월을 받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눴다.

10시 30분, 55명의 회원들은 서너 그룹으로 나뉘어 남부터미널 앞을 지나 양재시민의 숲 방향으로 출발했다. 정오가 가까워져 능선에 있는 임시 휴게터에서 각자 가지고 온 간식을 나눠 먹으며 환담시간을 가졌다.

당초 계획은 양재시민의 숲에서 단체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일찍 내려온 회원 18명이 식당으로 바로

가버리는 해프닝이 있었다. 낮 한 시경, 예약한 식당에서 장명호 회장의 환영사와 건배사를 시작으로 산행 뒷풀이가 시작됐다.

제주 흑돼지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와 소주, 맥주 등 푸짐한 식탁에서 55명의 회원들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일행은 식당에서 10



분 거리에 있는 정경석(관리) 회원 소유 건물의 1층 '세컨브레스' 카페에서 정 회원의 협찬으로 커피와 디저트를 대접 받았다.



## 회/원/동/정



▶**박성제(보도)**  
“해직 언론인에서 보도국장이 돼 뉴스를 재건하고, 사장이 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기록을 담은 책 『MBC를 날리면』을 9월에 출간했다. 1,2부는 ‘MBC살리기’, 3부는 ‘MBC 죽이기의 시작’,

4부는 ‘언론,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 전4부로 꾸며져 있다.



## MBC소식

▶**드라마 ‘연인’ 시청률 자체 최고 기록 경신**

드라마 ‘연인’이 시청률 자체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며 토요일 전 채널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이뤄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스코리아>에 따르면 10월 28일 방송은 전국 기준 시청률 12%로 <연인 파트2> 자체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다. 이는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 금토드라마 전체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3.5%까지 치솟았고 광고 및 채널 경쟁력의 주요 지표인 2049 시청률은 3.7%로 토요일 전 채널 프로그램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MBC 수사반장: 더비기닝> 촬영 재개**

<MBC 수사반장: 더비기닝>이 11월 2일 촬영을 재개한다. <MBC 수사반장:더비기닝>은 주연배우인 이제훈 씨가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촬영이 중단됐었

다. 한국형 수사물의 역사를 쓴 ‘수사반장’은 소(牛)도둑 검거 전문 형사(이제훈)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로 2024년 방송될 예정이다.

▶**MBC와 ‘하이브’가 ‘좋은 친구’로 다시 만났다**

지난 4년간 아티스트와 콘텐츠 교류를 중단했던 BTS소속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MBC와 다시 손을 잡았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10월 30일 상암 MBC 본사 사옥을 방문해 안형준 사장과 만나 두 회사가 공정한 파트너십 관계를 정립해 동반 성장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두 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낼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9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                |                |                |
|----------------|----------------|----------------|
| • 신준우(편제) 50만원 | • 이문노(보도) 10만원 | • 이상진(보도) 10만원 |
| • 문기영(관리) 20만원 | • 이동엽(기술) 10만원 | • 박순웅(편제) 10만원 |
| • 최병태(관리) 20만원 | • 원춘재(기술) 10만원 | • 최영식(관리) 10만원 |
| • 강성호(편제) 10만원 | • 이연재(보도) 10만원 | • 유기철(보도) 10만원 |
| • 한영희(업무) 10만원 | • 이병훈(편제) 10만원 | • 이정식(편제) 5만원  |



신준우



문기영



최병태



강성호



한영희



이문노



이동엽



원춘재



이병훈



이상진



박순웅



최영식



유기철



이정식

## 가을 등산대회를 마치고



파란 물감을 뿌린듯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우면산에서 MBC사우회 등산대회가 열렸다. 현직에 있을 때 사우회 담당 임원으로 북한산 등반행사에 응원차 참석한 이후 30여 년 만이다.

올해는 나이 든 회원들이 늘어남

초대 등산동호 회장 김진호(보도) 회원을 위시해 직전 회장 박한성(관리) 회원과 현 동호회장 최정일(관리) 회원 등 총 55명의 회원들이 함께 했는데 최근 몇년 사이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셈이다. 민폐가 될까봐 30분 먼저 혼자 출발했지만 길을 잘못 들

에 따라 힘든 도봉산길이나 북한산길보다 비교적 걷기에 무난한 우면산 둘레길을 택해 예술의 전당에서 매현 시민의 숲까지 2시간 정도 걷는 것으로 했다.

어 도중에 장영효 회원의 도움을 받아 일행과 합류하니 신입 일년 차인 김종민(편제) 회원과 이종숙(관리) 회원 등 여성 3명이 동행해줬고 오랜만에 보는 뉴페이스들이 많아 기분이 UP됐다. 한 시간쯤 걸었을까, 잠시 쉬며 각자 가지고 온 간식을 펼쳐 나누다 보니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얼굴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드디어 후지산이 무너집니다”라는 멘트로 축구중계의 새로운 장을 펼쳤던 송재익(ANN) 회원을 비롯해 86세 고령의 오정수, 장 용(기술), 류종현, 안재기(보도) 김보영, 이세용(관리) 회원 등 실로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이 반가웠고, 안택호(편제), 이재훈(기술) 등 사우회의 비교적 젊은 피에 해당하는 회원들은 선배들 틈에서 사뭇 조심스러움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산행을 즐기고 있는 게 보였다.

‘매현시민의 숲’에 도착해 <만나면 좋은 친구 MBC사우회 등반대회> 현수막을 걸고 기념사진을 찍는 동안 1진은 이미 ‘흑다돈’식당으로 직행하여 즐겁게 한 잔씩 하고 있었다.

특기할 것은, 정경석(관리) 회원이 양재천변 카페 <세컨 브레스>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디저트와 커피를 제공해준 일이다. 종업원의 손이 모자라자 건물주(!) 신분이면서도 음식을 손수 날라다 준 정경석 회원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한때 세월을 쫓아 다니던 우리가 이젠 세월에게 쫓겨 다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가을산행이었다.

장명호(사우회장)



## 경조사항

구순: 김영수(보도) 35.01.23

팔순: 최명규(기술) 44.11.22 김용빈(기술) 44.12.08. 최준식(보도) 45.01.02  
신해명(관리) 45.01.05 엄기원(관리) 45.01.08.

고학: 남두우(편제) 54.11.22. 이한철(편제) 54.11.27. 조명환(기술) 54.11.28.  
이용우(관리) 54.12.11. 한용규(기술) 54.12.23. 황인뢰(편제) 54.12.28.  
이영우(편제) 54.12.29. 송재종(보도) 55.01.03. 전재철(보도) 55.01.14.  
정 규(관리) 55.01.14. 류재영(편제) 55.01.15.

회갑: 성기정(관리) 63.11.16. 이상운(기술) 64.01.13.

결혼: 방기천(기술) 아들 10/7 임부영(관리) 아들 10/8  
김익원(편제) 딸 10/14 방운식(관리) 딸 10/22  
황효성(관리) 딸 10/29 류상철(편제) 딸 11/12

부음: 조수현(보도) 모친상 9/6 김재욱(관리) 장인상 9/12  
조형철(관리) 장모상 9/17 정보영(편제) 부친상 10/3  
류월상(편제) 모친상 10/7 안성일(보도) 장모상 10/22

## 연회비

평생회비: 김학구(관리) 안진영(편제)

2023년: 경진근(관리) 곽성문(보도) 권수훈(관리) 김경일(관리)  
김기도(보도) 김동진(보도) 金榮日(보도) 김일수(편제)  
김평호(편제) 노홍식(편제) 문진영(보도) 박명호(편제)  
박병완(기술) 심우승(편제) 오명균(편제) 이두표(업무)  
이병구(보도) 이상길(편제) 이은숙(관리) 李在元(전주)

이효석(관리) 장준성(보도) 정국록(보도) 최용원(편제)  
황종휘(관리) 홍학표(업무)

2024년: 김은혜(관리) 이한수(편제) 최우철(보도)

2025년: 박종진(편제) 최영식(관리)

2026년: 이학규(편제)

## 주소변경 / 신규

**편제:** 김상균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문정동, 올림픽웨이리타운)  
안진영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41길 33 (답십리대우아파트)  
윤창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오리나무정길  
장근수 서울 마포구 새창로 52 (도화동현대아파트)  
최용원 경기 광주시 양벌로 173 (양벌동 쌍용아파트)

**보도:** 김상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대화동, 힐스테이트)  
유기철 서울 중구 동호로10길 30 (신당동, 약수하이츠)  
이재훈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3-15 (공덕동, 래미안)  
한병우 서울 강남구 개포로 307 (개포동, 우성3차)

**ANN:** 송재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코오롱레이크폴리스II)

**기술:** 양운수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1길 24-9 (강일 포디움)

**업무:** 고춘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정자동, 파크뷰)

**관리:** 김애희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2000번길  
이건식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8길 58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이종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18-7 (덕소 진도아파트)

**대구:** 박세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24 (상현동, 성원상페빌)

##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김학구(관리)  
1986년 입사.  
전산부, 경인지사,  
자산개발국 등 근무.  
2022년 퇴사.



안진영(편제)  
1985년 영상  
미술국 입사.  
영상센터 등 근무.  
2022년 퇴사.



최용원(편제)  
1985년 입사. TV드라마본부,  
MBC아카데미 교수 등 근무.  
2018년 퇴사.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李銀實(편제)  
9월 12일 별세.  
향년 67세.  
1983년 미술국  
미술2부 입사.  
1998년 퇴사.



金芝顯(업무)  
9월 29일 별세.  
향년 84세.  
1973년 한국연합  
광고 입사, 1980년  
MBC 업무부,  
1994년 명예퇴직



崔熙太(기술)  
10월 2일 별세,  
향년 83세. 1968년  
기술국 입사.  
신흥송신소 근무.  
명지대학교 교수,  
1985년 퇴사.

##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 사진을 보내 주세요

MBC 생활이 담겨있는 사진들을 찾습니다.

기념사진도 좋고 기록사진 또는 스냅사진도 괜찮습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앨범을 뒤져 옛날 사진들을 살펴 보시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는 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실물 사진을 직접 보내셔도 됩니다.(물론 돌려 드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사우회가 준비한 아담한 선물을 드립니다. 마감은 11월 20일 입니다. 보내실 곳은 010-5944-7416(사우회 공용폰) 또는 사우회 사무처로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나의 MBC시절〉



김우룡(편제)

## ▶무면허 통역사

“내 평생 이렇게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수고했어요”

두 시간여 진땀을 빼고 강의실을 빠져 나오자 문밖에 대기하고 있던 柳達勳 연수실 장은 내 손을 꼭 잡고 감동에 찬 목소리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류 실장은 내가 제대로 통역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 자기 방에서 줄곧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1975년쯤이었다. 연수실에서는 뉴질랜드에서 저명한 방송전문가를 초빙하여 전국 계열사와 본사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마련했는데 이날 통역을 맡기로 한 분이 방송국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특강의 통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따가 자네가 와서 통역을 좀 해줘야겠어”

“아니, 저 취재 나가야 하는데 요.”

“자네 국장에게 이미 양해를 구해놨으니 수고 좀 해줘”

이렇게 통역사로 강제징발이 됐다. 정 그렇다면 연사를 좀 일찍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강연 시작 10여분 남기고서야 연사가 나타났다. 내가 난생 처음 해보는 통역임을 고백하고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을 해달라, 그리고 내가 사인을 보내면 말을 그치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연사는 단상에서 말하고 나는 단아래 책상에 앉아 메모를 했는데 웬걸, 강연이 시작되자 연사는 나와 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끝없이 얘기를 이어 나갔다. ‘이런 낭패가 있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부산을 간다고 치면 난 양재동 톨게이트라고 메모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수원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窮即通이라 했던가. 강연의 요지는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와 일렉트릭 컴퍼니(The Electric Company)의 아이디어와 제작 포맷,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이 어린이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다

행히 일주일 전에 나는 세서미 스트리트를 소개하는 영어 포켓북을 읽고 그 개략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참으로 天運이었다. TV커머셜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세서미 스트리트”의 컨셉은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것, 리얼 피플, 애니메이션, 노래와 춤, 그래픽, 다큐, 드라마 등의 기법을 총동원해서 취학 전 어린이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다. 포드 재단과 카네기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오랜 기간에 걸쳐 정교하게 만들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았다. 인종을 뛰어 넘어 흑인도 과감하게 기용했다.

부산을 향해 갈 때 연사가 양재동을 말하면 나는 만남의 광장과 그 주변을 설명했고 천안을 거론하면 삼거리에 호도과자와 온양온천까지 소개했다.

이렇게 그분의 강연 뒤에 질의, 응답까지 끝나니 어느새 두 시간이 지났다. 등골에 땀이 흘러 내리는 와중에 내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옆에 서 있던 이금희PD가 한마디 톡 던진다. “그거 김선배 강연이죠?” “어 맞아” 자세한 내막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내 임기응변에 속아 ‘MBC에 영어 신동이 나타났다’고 착각했을게다. 시침 똑 떼고 내 마음대로 통역을 일사천리 해냈으니 청중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인문학자도 정일과 자연과학자 최재천의 〈대담〉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구라는 우물쭈물하고 얼굴을 붉히다가는 들통이 나기 마련이다”.

## ▶遠路에

미국 CBS뉴스 사장 엘머 라우어(Elmer W. Lower)가 MBC 사장을 예방한 일이 있었다. “2시에 외빈이 사장님을 방문하니 와서 통역을 하라”고 金仁圭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다. ‘아이쿠, 이럴 줄 알았으면 통역대학원이라도 다닐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없지 않았다. 시간 맞춰 사장실로 갔다.

李桓儀 사장과 崔錫采 회장을 비롯해 임원 10여 명이 함께 있었다. 수인사가 끝나자 사장께서 “원로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시더니 내게 “통역하게나”고 명

한다. 나도 모르게 Thank you for your coming from a long way!란 말이 튀어 나왔다. 그런데 사장께서 a long way를 들으시고는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엘머 라우어는 처음 Life 잡지의 편집기자로 시작해서 NBC 부사장, ABC뉴스 사장을 11년간 지낸 뒤 ‘CBS뉴스’ 사장을 맡고 있던 미국 방송계의 거물이었다. 당시 CBS에는 그룹을 총괄하는 회장 밑에 스포츠, 오락, 네트워크, 라디오, 스테이션, 뉴스 등 부문별로 사장들이 독립 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문을 명시하고 사장직함을 써야 했다. 아무튼 라우어와의 환담은 그저 한미 방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던 중 라우어는 ‘월남전에 일어난 우스개를 하나 소개하겠다’고 하더니 하나도 ‘우습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무슨 사연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다’고 이실직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했다. 그래서 “이 분이 월남전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했지만 영어와 우리말의 뉘앙스와 구조가 너무 달라서 이걸 우리 말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좌중이 “와!” 하고 웃어주었다. 아마도 라우어는 자기 얘기가 잘 전달돼서 모두가 웃은 것으로 알았으리라.

## ▶Look at there, Ali!

한때 세계를 품미했던 헤비급 챔



알리 환영 퍼레이드

피언 알리(Muhammad Ali)는 “위대한 자”라는 별명 그대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시대의 영웅이었다. 로마 올림픽에서 복싱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딴 뒤 프로로 전향해 1964년 핵주먹으로 알려진 소니 리스톤(Sonny Liston)을 꺾고 헤비급 세계챔피언에 등극했다. 시합에 앞서 어느 인터뷰에서 “나비처럼 날아가 벌처럼 쏘겠다”(Float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고 했는데 말 그대로 리스톤을 쓰러트렸다. 그는 단순한 스포츠인이 아니라 ‘신념의 사나이’였다. 인종차별 반대, 월남전 반대, 징집거부 등 인권운동에 헌신함으로써 모든 것을 잃게 됐지만 32세에 다시 조지 포먼을 누르고 세계 챔피언을 되찾았다. 이 불굴의 의지에 세계가 찬탄해 마지 않았다. 그런 알리가 1976년 5월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일본에서 레슬링 선수 안토니오 이노키와 무하마드 알리의 세기적 대결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정부는 알리의 최측근 태권도 사범 李俊九를 통해 알리의 방한을 추진한 것이었다. 초청의 주체는 외형상 MBC였다. 외국 정상급의 국민 방문 못지않은 카퍼레이드가 벌어졌고 당연히 MBC를 예방하는 일정도 들어 있었다.

이 때 MBC는 머리를 썼다. 세기적 스타를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면 별도로 높은 개런티를 지불해야 하니 MBC 도착부터 떠날 때까지를 스케치해서 출연료 없는 특집을 꾸밀 요량이었다.

알리 방문 4일여 앞두고 朴瑾淑 상무의 호출을 받았다. “내가 알리의 영접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당신이 간사를 맡아 줘야겠어” 그래서 또 졸지에 세계적인 스타의 통역 겸 안내역을 맡게 됐다. 박상무와는 수시로 그의 방에서 알리 방문의 세세한 콘티를 의논했다.

알리가 MBC 정문에 도착하



면 영접위원장이 나가서 맞이 하도록 돼 있었다. “내가 알리와 악수를 하고 나서 정문에 설치된 대형 알리 걸개를 함께 올려다 보면서 손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

“Look at there, Ali!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리를 맞이 위해서 정동 MBC 정문 앞에는 극장의 입간판처럼 알리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알리가 도착했을 때 정동골목에 모여든 엄청난 사람들 때문에 “Look at there, Ali!”는 불발이 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내가 알리를 톡 치면서 “저기 좀 올려다 봐!” 소리쳤더니 그제야 위를 올려다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사장실에는 알리에게 입힐 한복, 갓과 두루마기가 준비돼 있었다. 이에리자의 작품이었다, 환담이 끝나자 李桓儀 사장은 나를 보고 준비된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라고 일렀다. 나는 한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입어보지 않겠냐’고 넌지시 말했더니 흔쾌히 응했다. 이제 갓 쓰고 한복 입은 알리를 스튜디오로 유인하는 일만 남았다. 쇼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스튜디오에는 사회자 변웅전과 가수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것저것 시설을 둘러보면서 마침내 프로그램 녹화 현장으로 알리를 안내했다. 알리가 처음 현관에 나타났을 때 로비에 있던 몇몇 여가수들(이성애, 옥희 등)이 “오, 알리!”라고 외치면서 알리에게 달려들어 포옹과 키스를 퍼부었다. 이때만 해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비밀리에 기획한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다.

알리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변웅전은 그를 자연스럽게 춤판의 주인공으로 모셨다. 한동안 노래와 트위스트로 고조된 스튜디오는 흥과 열기로 넘쳐났다. ‘도둑 촬영’한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다. 그날 밤 MBC는 비싼 값에 스폰서를 유치해서 〈특집 알리와 함께〉를 긴급 편성했다.

문제는 다음날. 자고 나니 도하신문은 이구동성으로 MBC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동방예의 지국에서 이게 웬 말이냐’고 개탄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당시는 70년대 아닌가. 프로

그램 앞머리에 나간 여가수들의 돌발 행동이 문제였다. “어찌 대한의 딸들이 흑인 복서의 목에 매달려 포옹하고 키스를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었다. 신문의 연타를 맞고 이환의 사장은 방송 역사상 최초로 뉴스데스크 시간에 대국민 사과방송을 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막도약 단계에 들어선 텔레비전 매체에 대한 올드 미디어인 신문들의 시기와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 ▶Life begins at sixty

78년 여름. 라디오국 元丙禧 선배가 ‘좀 도와달라’고 했다.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 “인생은 60부터”가 ABU 작품경연대회에 출품하기로 결정됐으니 영어로 번역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70년대만 해도 유학을 다녀온 사람은 방송국 언저리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번역료를 주고 외부에 일을 맡길 만큼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프로그램 속의 해설과 대화를 옮겨 쓴 원고를 내밀면서 그는 ‘내일까지 해주라’고 했다. 나는 약속도 취소하고 번역 일에 매달렸다. 통역보다는 번역이 한결 수월하다.

“인생은 60부터”는 1970년대 MBC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다. 100세 시대가 된 지금 보면 사람들에게 공감받을 리 없겠지만 60세 전에 은퇴하고 70세 전후에 세상을 뜨는 게 일반적이었던 시절 ‘인생은 60부터’라는 제목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다.

元PD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프로는 노인대학 이야기였는데 정성을 들인 만큼 그 해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ABU 아세아-태평양방송연맹 총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노인의 사회 봉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콘테스트에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호주 등 20여국의 회원 방송사들이 출품해 경합이 치열했다.

공교롭게도 나는 任宅根 전무를 모시고 MBC 대표단의 일원으로 ABU총회에 참석했다가 ‘인생은 60부터’가 대상으로 발표되자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담당 PD가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 ▶나는 타자수였다

어떻게 해서 영어가 나의 브랜드가 되었나? 나는 사실 입사 전부

터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다고 내심 걱정하고 있었다. 입사 면접을 볼 때 ‘대학에서 뭘 배웠냐’는 질문을 받고 ‘영국 빅토리아 시대 연극에 관심이 많았다’고 답변했다. 면접이 끝나고 돌아오는 데 내 귓전에 들리는 소리가 여태 남아 있다. “어, 드라마를 시키면 되겠어!” 이때 나는 합격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수습이 끝나자 처음 영화부에 배정됐다.

텔레비전 개국 초기의 영화부는 PD와 카메라맨이 20명쯤 되는 막강 부서였고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에 의욕이 넘쳤다.

그러나 자체 제작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에 외화 편성 비중이 높았다. 매일 한두 편씩 외화가 방송되고 토요일 외화 feature〈명화극장〉과 일요일 극장용 방화〈일요극장〉은 고정 편성됐다. 성우와 탤런트의 주수입원이 외화 더빙이었던 때다. 따라서 인기 있는 외국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경쟁사에 앞서 수입하는 일에 TV국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영화부에는 나 외에도 김영연, 나미레 등 서울대 영문과 출신 2명, 연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행신 등 여럿이 집중 배치되었다. 외화 수입을 위해서 외국의 우수한 방송사와 배급사에 편지를 띄워서 상담하는 일은 영화부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sales agent를 만나서 흥정하는 일도 빈번했다.

당시 수동식 올리베터 타자기 한대가 영화부 재산목록 1호였고 나는 “타자수”로 일했다. 왜 閔龍基 부장은 여러 명의 신입사원 중에서 하필 나를 타자수로 발탁(!)했는지 지금껏 의문이다.

나를 타자수로 지명한 이유는 아마도 내가 방송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시사영어연구, 영어세계라는 당시로는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컸던 영어잡지의 편집기자를 경험했다는 것과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참고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이때 나는 경영대학원 석사과정도 수료하였다.

타자수 노릇을 하는 한편 외화 더빙 연출도 익히고 수시로 한국의 영상, 카메라 리포트 등 카메라 구성물 제작도 해가면서 일을 배우고

있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71년 나는 서울대 신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 신문대학원은 애초 똑같은 강의가 주야간 두 번 개설된 특수대학원이었다. 주간 20명, 야간 30명의 중견 언론인을 선발해서 낮이고 밤이고 편한 시간에 수강토록 하였다(운영경비 때문에 나중에 야간만 운영하다가 관악캠퍼스가 준공되자 1974년 신문학과 대학원으로 통합된다).

1972년은 나의 방송사 생활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해였다. 네덜란드 정부 초청으로 텔레비전 제작자 연수과정에 파견할 사람을 선발하니 각 국실은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다. 편성국에서는 내가 추천되었다. 전국지역 방송사의 라디오와 TV, 보도와 제작의 수재들이 수십명 모여 한 명의 후보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다.

선발 기준은 오로지 영어시험 하나였다. 이 시절 토익이나 토플 시험은 없었고 영어를 검정하는 국가 공인 기관은 LATT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이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회화 시험으로 각 100점씩 배점하여 결과를 합산했다.

한달 후쯤 공보처로부터 파견 예정자로 확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다. 영국 톰슨재단 파견에는 동아일보 李啓益(훗날 교통부 장관) 기자였고 네덜란드 정부 초청에는 내가 선정된 것이다. 과정의 정식 명칭은 NOS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 과정이었지만 나는 거의 6개월 동안 네덜란드와 유럽 몇 나라를 다녀오고 나서 제작자가 아니라 텔레비전 연구자의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됐으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그 뒤 1973년에는 “미국 속의 한국인” 제작을 위해 점보기 첫 취항에 초대받게 되었고, 78년에는 서울국제가요제 사무국 간사, 대만 신문국 초청 방문, 국제협력부 차장, “국제TV심포지엄 - 한국TV 어디까지 왔나”를 주관했고 Kissinger 초청 특별대담의 실무를 맡았으며 도쿄, 뉴델리, 마닐라 국제회의에 잇따라 대표로 참가했다. 1980년 4월 입사 10년만에 영화부장을, 83년에는 성곡언론재단 장학생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으로 떠난다.



김승월 칼럼



## ▶호칭

“어르신이 뭐야, 어르신이.”

70 안팎 나이의 방송 선배님들에게 ‘어르신’이라고 했다가 한 말 씀 들었다. 라디오PD 출신 모임 ‘인사동클럽’에서다. 회원 대부분 70이 넘고 몇 분은 80을 넘기신 원로방송인들이다.

여든 넘은 한 여자 선배님은 “어르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늙어버린 느낌이 나요”라며 정색을 하셨다. ‘어르신’은 존경받을 만한 분을 뜻하고, 나 또한 존경을 나타내는 말로 그렇게 불러드렸는데 이제는 아닌가 보다.

같은 호칭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지는 걸까. 성당 시니어 모임에서 ‘어르신’ 하면서 말쑥드렸을 때는 탈이 없었는데 자존감 강한 방송 선배님들은 그렇게 반응한 것이다.

곰곰 생각해보니 ‘어르신’에는 모셔지고, 보호받아야 할 ‘약자弱者’의 느낌도 담긴 듯하다. 어떤 말도 세월이 흐르면 때가 묻기 마련이다. ‘어르신’을 요즘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로 나온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어르신’이란 호칭이 ‘병약한 노인을 뜻하는 말’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몇 해 전,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수가 수업시간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학생이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장애우’라고 해야지 ‘장애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수는 사과를 거부했다.

학생의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란 호칭이 사과할 만큼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은 교수의 행위를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대학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에 따라서는 호칭에 그리 예민하게 반응한다.

시각장애인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장님’ ‘소경’, ‘봉사’라는 말이 상대를 낮잡아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

지만 그런 호칭이 처음부터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대구대학교 임안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시대 때 ‘소경’은 종4품, 조선시대 때 ‘봉사’는 종8품에 해당하는 관직의 이름이었다고 한다.

당시 시각장애인을 부를 때 그 사람의 관직명을 사용하여 부르다 보니 이후 소경과 봉사가 시각장애인의 호칭으로 굳어졌다는 설명이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눈이 나쁜 사람을 이룰 때 ‘시각장애인’으로 부르도록 정해졌다).

호칭에는 특정 사회나 집단의 의식이 담기기도 한다. 우리네 직장에서의 호칭은 우리의 수직적 문화를 반영한다. 국장님, 이사님, 회장님처럼 직급에 ‘님’까지 붙인다. 미국에서는 이름만 부르지만 직급은 부르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꼬박꼬박 “예, 사장님” “! 예, 부장님” 식이다. 해서 수평적 조직문화를 이루어 창의력을 높이고,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칭 파괴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SKT나 광고회사 대흥기획 같은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하나의 호칭으로 통일했다고 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 뒤에 똑 같은 호칭을 붙인다. SKT에서는 김승월 님, 대흥기획에서는 김승월쌤(COM) 식이다.

이름보다 더 좋은 호칭이 어디 있을까 만 이름도 부르기 나름이다. 외국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한 친구는 늘 ‘승월’ 하고 나를 부른다. ‘승월아’ 라는 친구 호칭과는 느낌이 다르다. ‘아’가 들어가면 친숙한 느낌이 나지만, ‘승월’만 하면 아랫사람 부르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오래 들었어도 여전히 불편하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듣는 사람의 의도와 일치하기도 쉽지 않다. 말은 마음이 담기는 그릇이다. 그릇도 좋아야 하지만 내용물도 좋아야 한다. 소리에 담긴 어감이 단어 자체 의미를 바꾸기도 한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 ▶다 다르다

아내와 나는 많이 다르다. 양치

질할 때 물컵을 사용하고 나면 나는 으레 컵 입구를 위로 향하게 하는데 아내는 엎어 놓는다. 먼지가 내려 앉으면 지저분해질까 봐 그럴 게다. 하지만 나는 엎어놓은 컵을 볼 때마다 입 닿는 컵 언저리에 바닥의 뭔가가 묻어나지 않을까 찜찜하다. 내가 컵을 똑바로 세워놓으면 아내는 엎어 놓고 아내가 엎어 놓으면 나는 다시 세워 놓는다.

부부는 살면서 닮아 간다는데 결혼생활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린 여전히 다른 게 많다. 닭튀김 먹을 때 나는 젓가락이나 포크를 쓴다. 손가락에 뭔가 묻는 게 싫어서다. 아내는 촉감을 즐기는지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다.

‘손가락으로 쌀밥을 집어먹는 서남 아시아 출신이냐’고 아내를 놀리면 ‘닭튀김을 포크로 찍어 먹으면 무슨 맛이 나냐’고 맞선다. 하긴 김치도 손으로 쥐욱 찢어 먹어야 맛있다는 사람도 흔하긴 하다만.

다르니까 불편한 점도 많다. 김치를 내올 때면 아내는 국물 없이 배추, 무, 건더기만 건져서 깔끔하게 내온다. 모양새야 좋지만 김치는 국물이 있어야 제맛 아닐까. 아내에게 ‘국물 좀 넣어달라’고 잔소리도 해봤지만 열에 아홉은 자기 식대로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김치 국물을 떠 넣거나 그게 귀찮으면 주는 대로 그냥 먹는다. 다른 걸로 치자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다르지 않을까.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달라진다는 설도 있는데 꼭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유전자가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자랐는데 똑같아질 수 있을까?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은 정물을 즐겨 그렸다. 100여 개의 사과를 그린다면 100여 개의 사과를 다 다르게 그렸다. 사과 생김새도 다 다르겠지만 놓인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이고 비추는 빛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달리 드리운다. 세잔은 그런 생각으로 사과를 그려냈다고 한다. 같은 질문도 때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도 한다.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흔한 문제를 내봤다. 물 반 컵을 보여주고 ‘반 컵이나 남았으니 낙관적이나 반 컵밖에 없으니 비관적이나’고 물었다. 80여명 중 “반 컵이나 남았다”에 손드는 학생은 없었고, “반 컵밖에 없다”는 학생은 여럿 있었다. 순간 “반 컵밖에 없다”고 생각한 학생은 비관적이지 아니라 적극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적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한일월드컵에서 히딩크감독이 포르투갈을 누르고 8강에 진출한 뒤 기자들에게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I am still hungry)”

이처럼 같은 것을 놓고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을 ‘틀짓기’ 또는 ‘프레이밍’(Framing)이라고 한다. 틀짓기 이론에 따르면 사람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준거틀과 방식이 달라서 누구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한다고 한다. 저마다 처한 환경도 다르지만 달리 익혔고 달리 살아왔으니 제 방식대로 세상을 볼 수밖에.

같은 말을 해도 다 다르게 들으니,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알아듣기란 쉽지 않다.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네”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은 “아, 오늘 일 많이 했으니 이제 쉬면서 밥 먹어야겠구나”고 즐거워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일 시키는 사람은 “아니, 일 시작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밥 타령이야. 이러다간 오늘 중에 일을 다 끝낼 수나 있을까 몰라”라고 걱정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며 각자 다른 창문으로 세상을 본다. 모두가 자기 식으로 생각한다. 소통의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역지사지易地思之,역할을 바꾸어 생각해 보기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 말씀에도 있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 자회사 탐방

MBC플레이비 대표 강재형과  
즐기며 배우는 직업의 세계 『키자니아 테마파크』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처음으로 하기란 쉽지 않다. 실패의 두려움도 적지 않고 오해와 견제도 피할 수 없다. 작은 씨앗을 키워 열매 맺기도 힘들다. 시간도 오래 걸리며, 이것저것 마련하고 여기저기서 도움받아야만 한다. 열정과 끈기 없이는 해낼 수 없다.

1993년 10월, 여의도 MBC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유인물이 놓여 있었다. 우리말의 잘못된 쓰임을 바로잡아주는 길라잡이 〈우리말 나들이〉다.

그 후로 4년이 흐른 뒤 사옥 엘리베이터 모니터로 〈우리말 나들이〉가 방영됐다. 다시 5개월이 지나서, 1997년 12월 8일부터는 MBC TV 매일 10분 프로그램으로 정규 편성되어 오늘까지 16년째 방송되고 있다. 〈우리말 나들이〉란 이름을 짓고, 기획하고 제작·연출했던 사우가 강재형 아나운서다.

“틀린 우리말을 바로잡고 좋은 우리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쉽고도 재미있게 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방송사의 우리말 프로그램은 고지식하고 계도적이었지만, 우리는 아나운서가 망가지기도 하고, 스스로 잘못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신선하고 재미 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기획하고 제작한 최초의 TV 프로그램 〈우리말 나들이〉의 성취는 그의 저력을 가늠하게 해준다. 그는 교수, 작가, 사진작가, 카레이서, 전시가, 텍스트그램(TEXTOGRAM)을 이용한 추상 미술 작가로 활동 영역을 넓히더니 이제 기업가로 변신했다. 지난 4월에 MBC 플레이비 대표로 취임하여 ‘키자니아 코리아’를 이끌고 있다.

키자니아는 ‘직업 체험 형식의

세계적인 놀이공원’이다. 20여 나라의 27개 도시에서 개장 중이다. ‘키자니아 서울’은 잠실 롯데백화점 서쪽 끝에 있다. 1층 입구에 들어서면 공항이 나온다. 공항 출입국 시설처럼 만들어져 출국 체험하게 된다. 먼저 번호표를 뽑고 티켓카운터로 가서 체험 팔찌와 여행자 수표, 탑승권을 받는다. 탑승권에 적힌 이름 순으로 안내방송에 맞춰 입장한다.

“키자니아는 ‘멋진 어린이들의 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 현장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장하면서 보신 바와 같이 마치 공항에서 여행 떠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 즐거운 어린이의 나라에 오면 실제의 2/3 크기로 재현된 체험관에서 실감 나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재형 대표의 설명대로 건물은 물론 모든 시설이 작게 만들어져서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겠다. 2층은 센트럴 시티. 키자니아 중앙광장과 화재진압 현장, 특수부대 훈련소, 드라이빙 트랙, 스포츠 플렉스와 같은 시설을 갖췄다.

3층은 천정이 하늘로 꾸며진 스키아시티다. 소방서, 방송 스튜디오, 뷰티 살롱과 같은 시설이 있고, 2층에 있는 센트럴 시티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다. 부모들은 3층에서 쉬면서 2층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다.

‘키자니아 서울’은 넓이가 3,300여 평으로 90여 개의 직업 체험시설이 있다.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키자니아 부산’은 센텀시티에 있는데, 넓이는 약 3,000평으로 70여 개의 직업 체험을 제공한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승무원 교육센터, 소방서, 쿠킹스쿨, 버거 연구소, 오디션센터입니다. 〈승무원교

육센터〉는 실제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입고 체험할 수 있어 인기가 있고, 〈소방서〉는 불을 끄러 직접 출동하는 실감나는 체험이기에 인기가 많습니다. 〈쿠킹스쿨〉과 〈버거 연구소〉, 〈시리얼 카페〉 같은 이른바 ‘먹거리’ 체험은 언제나 아이들이 첫 번째로 달려가는 곳입니다. K-POP의 열풍에 따라 아이돌처럼 댄스를 배워보는 〈오디션 센터〉, MBC플러스와 함께하는 〈스포츠 아카데미〉는 활동적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입니다. MBC가 참여한 〈TV 스튜디오〉, 〈라디오 스튜디오〉는 방송인을 꿈꾸는 고학년 어린이들이 꼭 거쳐 가는 곳이지요.”



키자니아 하노이1

어린이들이 직업을 체험하면 키조(키자니아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받는다. 쓰다 남은 키조는 은행에 저금하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다. ‘일해서 벌고 벌어서 저금하고 쓴다’라는 경제의 기본관념을 배우게 된다. 자연스럽게 노동의 가치를 체득하고, 직업 적성을 찾는 데 도움받는다.

자녀교육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해마다 100만여 명이 ‘키자니아 서울’과 부산을 방문한다. 누적 관람객 천만 명은 이미 2022년 1월에 기록했다. ‘키자니아 코리아’는 지난 10월 말에 베트남 하노이 롯데몰에 지점을 열었다. 경과를 봐서 호찌민



키자니아 서울

에 2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어린이 수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출산율이 높고, 어린이가 많다. 게다가 교육열도 높다. 서울과 부산보다 하노이의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다. 강재형 대표의 바람이다.

“어린이 인구가 줄어서 새로운 관람객층을 찾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의 문화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인공지능시대에서는 직업이 재편됩니다. 새로운 직업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메타버스, AR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시켜 체험관을 넓힐 것입니다.”

작은 기회라도 살려내며, 열정과 끈기로 새로운 영역을 하나하나 넓혀왔던 강재형 사우. 이제는 키자니아에 새로운 문화를 입히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구상을 차근차근 펼치고 있다. 강재형의 ‘키자니아 나들이’가 어떤 모습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특보〉 MBC 사우회원 가족들에게는 키자니아 입장권을 4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원하시는 사우회원께서는 사우회 사무처 02-722-7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담. 정리: 김승월)



키자니아 부산



강재형 사장과 김승월



## 목포의 명물 『MBC 스테이션월』 -의외성과 화제성 그리고 또 하나의 미래



김순규  
(목포MBC  
디지털제작국장)

지난 9월 목포MBC는 목포역 앞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이사 후 약 한 달여 동안 가장 주목 받은 것은 단연 『MBC스테이션월』(목포MBC사옥 미디어월의 이름)이었다. 오랫동안 저녁 8시 경이면 목포역 주변은 늘 어두컴컴했다. 불빛이라고는 16년전에 세운 낡은 루미나리아가 전부였다. 목포역이 있는 원도심은 사는 사람도, 살아 온 공간도 모두 늙고 낡아버린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시각적으로나마 큰 변화가 생겨 목포역 주변이 환해졌으니 이곳 주민들은 물론 목포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좋아했다. 미디어월은 그렇게 어느 날 문득 목포역 앞에 등장하는 ‘의외성’에서 시작됐다.

2023년 목포MBC 용당동 구사옥 매각과 신사옥 매입을 동시 추

진하던 무렵, 사옥자산화추진단은 신사옥으로 옮기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었다. 마침 본사도 상암동 로비에 미디어월을 계획하고 있었다. 미래전략실 창의공간TF팀은 이미 국내 미디어월 시장에 대한 조사와 추후 콘텐츠 운영과정을 고민하고 있었다. 목포MBC는 당시 신사옥 리모델링 설계 밑그림을 그리던 차에 본사TF팀에 “목포로 오셔서 특강한 번 해주세요”라고 요청했고 박재훈 정책협력팀장과 옥승경 디자인센터장, 전우철 사원 등 세 분의 특강이 이뤄졌다. 우리는 무엇보다 KTX 목포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치는 신사옥(당시 KB손해보험 목포빌딩)에 대한 외지인의 직관이 더 궁금했다.

당시 특강의 핵심은 세 가지 즉 ‘콘텐츠회사로서 장점과 격을 갖추고’, ‘TV화면비례에서 벗어난 시각적 충격과 쾌감을 주는 디자인’, ‘근대와 추억을 소비하는 지방도시에서 의외의 현대적 스타일이 드러나

면 좋겠다’ 등이었다. 막대한 설치비, 콘텐츠 수급, 전기료와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미디어월이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던 차에 추진단에게는 자신감을 얻는 기회였고, 구성원들도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해를 넘겨 이왕 미디어월을 구축한다면, 몇 년전부터 인기가 높은 ‘아나몰픽 콘텐츠’도 상영이 되는 커브형 설계가 필요했다. 다행히 건물 외벽의 창을 가리는 문제나 구축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가로 14미터, 세로 16미터 크기의 커브형 미디어월 즉 ‘MBC스테이션월’이 탄생했다. 마침 ‘고향사랑기부제’ ‘목포야행’이라는 아나몰픽 기획이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초기 시장 진입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제 MBC스테이션월은 의외성에서 화제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그 화제성은 정확한 타이밍, SNS를 통한 2차 바이럴 등을 통한 꾸준한 감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뒤에는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1위 달성, 축하합니다’의 메시지를 붙이는 방식, 목포방문이 기삿거리가 되는 연예인, 유명 유튜버의 환영 메시지, 최근 조선일보

에서 정치적 기사로 논란이 된 ‘대통령 목포방문 환영’ 등 메시지 소통도 있고 ‘난영가요제’, ‘불꽃쇼’, ‘목포야행 퍼레이드’의 라이브 방송, 나아가 일반 관광객의 목포여행 사연 영상 게시 등 기존 대형 옥외전광판이나 광고판에서는 표출하기 힘든 이야깃거리를 소통시키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미디어월의 주요 타깃은 사실 목포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다. 최근 수도권대행사에서도 심심찮게 문의가 오고 있다. 어찌보면 거대 도시 서울에서 못 본 것을 목포를 여행하면서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다. ‘MBC스테이션월’은 그런 화제성을 넘어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목포MBC의 또 하나의 미래다.



목포 MBC 오픈 스튜디오



엠빅 프렌즈



스테이션월

문화방송(MBC) 사우회

동화인협동조합  
DONG HWA IN COOPERATIVE

문화방송(MBC) 사우회의 상조는 동화인협동조합과 C&G라이프가 책임지겠습니다.

###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100%** 후불제 상조



C&G라이프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장례를 책임지는 의전 전문 회사입니다.

사우회 상조관련 문의  
010-8761-6643

전국 24시간 대표번호  
1544-4744